



호원대 펜싱부, 전국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 우승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펜싱부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63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최종 우승했다고 밝혔다.

여자 에페 단체전에 진출한 호원대학교 스포츠경호학과 4학년 한다현, 최예원, 김다은, 스포츠무도학과 3학년 이유빈 선수가 경남대를 상대로 준결승에서 45대 38로 승리하고, 최종 결승전에서 지난 대회 단체전 우승팀이었던 우송대를 만나 45대 24로 가뭄게 승리하며, 여자 에페 전국 최강팀을 입증하였다.

또한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는 스포츠무도학과 3학년 나성찬, 강태원, 이승민, 2학년 오신우 선수가 8강전에서 동의대를 45대 36으로 승리한 뒤 4강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남자 플러데 단체전에서도 스포츠경호학과 4학년 배재관, 스포츠무도학과 3학년 박순혁, 김시우, 1학년 정현 선수가 4강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했으며,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는 스포츠경호학과 4학년 박성현 선수가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플러데에서는 스포츠경호학과 4학년 배재관 선수가 마지막 동메달까지 거머쥐었다.

/군산=김만호 기자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명자)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쉼랜드에서 임원 및 회원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여성단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회원 상호간 진솔한 소통을 통해 여성단체협의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교육에서는 '성리더십 향상·소통'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순창 여성리더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명자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따뜻하고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왕형 기자



임실 덕치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 교육 실시

임실군 덕치면이 지난 7일부터 3일 동안 노인 일자리(마을지킴이)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이해, 사례로 배우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폭염 대비 행동 요령, 응급처치 및 피해 보고 안내 등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회의실에서 동영상 시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동영상 속 스트레칭 동작을 어르신들이 직접 따라 해 보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임실=전충영 기자

김제 성덕면, 지역 협력 위한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성덕면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기관·사회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순 성덕면장을 비롯해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현안 공유와 주요 행사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제9회 성덕면민의 날 행사 준비, 제27회 김제 지평선축제 음식 부스 운영 등 다가오는 지역 주요 행사에 대한 안내와 협조 요청이 진행됐다.

이어 문순 면장은 교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 마을별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서남권 추모공원 이용 안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 안내, 장마철 집중호우 유의사항 등 다양한 시정 및 민정 관련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국 헌혈봉사회, 헌혈 문화 확산 '앞장'

전북 적십자혈액원서 '2025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임시총회' 개최

"당신의 헌혈, 누군가의 생명을 살립니다." 대한적십자사 헌혈봉사회 전국협의회(회장 이상성)가 지난 12일 오후 전북 적십자혈액원에서 '2025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생명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 지부 회장 및 임원 50여 명이 참석해 헌혈 문화 확산과 봉사단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북 적십자혈액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뒤,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을 방문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체험했다.

이들은 "전북의 따뜻한 정서와 한옥마을의 정갈한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주의 아름다운 정취에 빠지게 되었으며 전국 헌혈자 간의 연대감을 더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오늘날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혈액'만큼은 여전히 사람의 몸에서만 얻을 수 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에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누군가의 헌혈이 곧 생명을 의미한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방학, 감염병 유행기에는 헌혈 참여가 급감해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전국협의회는 이러한 위기감을 회원들과 공유하며, 오는 9월 27일 강원도 원주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창립 20주년 기념 총회를盛大하게 열어 전국적인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다짐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흥열 감사관이 직접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 체계를 설명하고, 전북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부패취약분야 개선 방향을 강조했다.

청렴연수원 감사 초빙 특강도 이어졌다.

유용원 청렴연수원 강사는 '청렴으로 여는 전북형 미래교육'을 주제로 청렴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갑질 문제에 대한 사례 중심의 설명으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청렴과 문화가 만나는 '청렴 퓨전국악' 공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통한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오직 청렴만이 전북교육을 지



어서 윤 회장은 "자신이 처음에는 무의미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혈을 하였는데 한번은 백혈병에 걸린 학생의 아버지가 헌혈증을 기증한 사실을 알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 전에 와서 다시 한번 헌혈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헌혈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금은 헌혈을 하는 것이 아주 손쉬워져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헌혈 예약이 가능하고, 헌혈자의 건강을 점검해 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무엇보다 헌혈은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이자, 가장 실천적인 생명나눔의 시작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5~6대 전국회장을 역임한 노규동 봉사자도 "헌혈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라며 "더 많은 이웃이 이 따뜻한 기적에 함께하길 바란다"며 "헌혈 운동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전북교육청,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년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문화예술과 결합한 공연형 청렴 교육, 종합 청렴도 체계 이해 교육, 청렴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흥열 감사관이 직접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 체계를 설명하고, 전북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부패취약분야 개선 방향을 강조했다.

청렴연수원 감사 초빙 특강도 이어졌다.

유용원 청렴연수원 강사는 '청렴으로 여는 전북형 미래교육'을 주제로 청렴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갑질 문제에 대한 사례 중심의 설명으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청렴과 문화가 만나는 '청렴 퓨전국악' 공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통한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오직 청렴만이 전북교육을 지



키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청렴이 조직문화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부안소방서, 화재 초기 진압 시민 유공자에 감사 표창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부안상설시장 안 점포화재발생 초기 신고와 소화기 진압으로 대형화재를 막은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5시 4분경에 전귀범씨가 부안을 부안상설시장을 지나가다 점포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 즉시 119에 신고하며, 주변 상인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소방차 도착 전 소화기 진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부안소방서는 "소화기 사용과 빠른 신고가 없었다면, 점포 밀집지역인 시장 특성상 인접 점포로 연소 확대돼 대형 화재로 번졌을 수도 있었다"라며, "시민들의 침착하고 빠른 대처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최길웅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주변에 도움을 준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의식이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산부설초, '전문직업인과 특특한 만남' 진행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지난 10일 '전문 직업인과의 특특(Talk Talk)한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학자, 변호사, 아나운서, 약사, 성악가 등 총 27명의 전문 직업인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저학년군은 13개, 고학년군은 14개의 직업군 중 각각 두 가지를 선택해 강의와 실습,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직업의 준비 과정, 장단점, 보람 등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읍 수영연맹회장배 수영대회 성료

정읍시 수영인들의 실력을 겨루고 시민이 함께 어울린 수영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3회 정읍시 수영연맹회장배 수영대회'가 지난 13일 시체육트레이닝센터 실내 수영장에서盛大하게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정읍시 수영연맹(회장 박지영)이 주관해, 수영을 즐기는 시민들에게는 오랜만에 열리는 대회이자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대회에는 학생부 37명, 성인부 204명 등 총 241명의 선수가 참가해 접영, 평영, 배영, 자유형 등 다양한 종목에서 각고 다투는 실력을 선보였다. 단체전은 이벤트 형식으로 운영돼 색다른 재미를 더했고, 개인전은 연별별로 나눠 치러져 공정성과 흥미를 동시에 갖췄다.

행사는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고, 대회장을 찾은 가족과 시민들의 응원 속에서 선수들은 환한 웃음과 열정으로 물살을 갈랐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서 수영을 매개로 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상동지구대, 공동체 신뢰 회복 위한 캠페인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 상동지구대(대장 이장춘)는 최근 기초질서 확립 및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상동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정읍경찰서 시민경찰학교·상동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4개 지대(상동, 내장, 시기강촌, 장명) 등 민·경 협력단체원 36여명이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미소거리 일원 및 주택가 등지에서 전단지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노소(예약부도) 예방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상동지구대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일상 속 질서·의식 회복과 사기범포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중심 치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치유의숲 방문해 치안간담회

고창경찰서(총경 한도연) 모양지구대(경감 황문주)는 최근 관내 외곽지역에 위치한 산림청 주관 시설인 국립 고창 치유의 숲을 방문해 방범진단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어경해 센터장과 치안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상대적으로 치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외곽지역 시설의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주민·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치유의 숲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CCTV 설치여부, 외부출입 통제, 비상벨 등 보안 시설물 점검과 순찰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황문주 모양지구대장은 "외곽지역 범죄로부터 안전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방범순찰과 협력 치안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 검산동 지사협, 7월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회장 조기심)가 7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분기에 진행했던 5개 사업에 대해 위원들의 자체평가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3분기 관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기관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재가·제방 클래스'에 대해 논의하며 사업 추진에 의지를 다졌다.

조기심 민간위원장은 "검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두 한마음과 한뜻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활동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을 발판 삼아 하반기에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